地理學論叢 22號(1993. 8), 57-76.

서울시 인쇄업의 국지적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박 배 균**

< 차 례 >

Ⅰ. 서 론
Ⅱ. 인쇄업의 특성
1. 인쇄업의 시장수요 특성과 생산방식
2. 인쇄업의 노동과정과 노동시장의 특성
Ⅲ. 서울시 인쇄업의 공간구조와 노동시장
1. 서울시 인쇄업 산업공간의 특성
2. 산업공간에 따른 차별적 노동시장의 형성
Ⅳ. 국지화된 노동력 재생산과 직장-주거지의 입지적 상호의존성
1. 주거지의 입지
2. 국지화된 취업과정
3. 사회적인 성관계와 국지화된 노동력 재생산
4. 토론: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상호의 존성
Ⅴ. 결 론

主要語 : 국지적 노동시장, 국지화된 노동력 재생산, 고용관계, 주거지 입지, 국지화된 취업과정, 사회적 성관계, 직주간 거리.

Ⅰ. 서 론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부분의 도시들은 공장, 사무실과 같은 생산활동과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주거, 휴식, 소비, 교육 등의 활동들이 혼재되어 구성된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노동력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어, 어떤 사람이 임노동자로서 생산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매카니즘을 통해야 한다. 결국, 생산과 재생산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의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노동시장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도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형성되는 局地的 勞動市場(local labour market)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80년대 이후 산업입지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서 노동력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산업의 입지와 지역적인 노동력 특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Storper & Walker, 1983; Lewis & Ford, 1984; Nelson, 1986; Scott, 1988a, 1988b; Messay, 1984; 박원석, 1990; 이정협, 1993). 이러한 논의들에서 핵심적인 것은 노동력의 특성이 지리적으로 다르고, 이러한 노동력의 지역적인 차이를 기업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접근방법에 대한 몇가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접근들은 노동력이 지리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이야기 했지만, 기업의 입지결정과정과 생산의 논리만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지리적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허우긍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지와 노동력의 국지적인 공급과 재생산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된다(Hanson & Pratt, 1992; Peck, 1992; Werkerle & Rutherford, 1989). 즉,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에서 勞動力 再生産(reproduction of labour force) 측면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 선행연구는 대도시의 공간구조가 산업의 입지와 국지적 노동시장의 발달과정을 통해 영향받음을 주장한다(Scott, 1988a). 이 연구에서 도시의 공간구조는 生産의 공간과 노동력의 再生産을 위한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형성되고, 두 상이한 공간이 만나는 媒介를 국지적 노동시장의 작동과정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노동시장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하지만, 국지적 노동시장과 도시공간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보다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할 중요한 문제점을 지니는데, 이는 노동력의 재생산 과정에 대한 분석이 너무 미미하고, 생산의 논리를 너무 직접적으로 노동력 재생산의 논리와 연결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도시의 산업이 발달하면서 국지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이 과정을 통해 작업장과 노동자의 주거지가 입지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측면들이 밝혀져야 한다. 첫째, 산업의 특성과 생산방식, 노동과정 등이 국지적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구성, 고용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도시공간 속에서 노동자들의 주거가 결정되는 과정, 국지화된 노동자들의 구직 및 취업과정, 그리고 성, 인종 등과 같은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노동력의 공급이 제약되는 과정 등 재생산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생산측면과 재생산측면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국지적 노동시장의 특징을 이루고, 이러한 것들이 공간적으로 표현되어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는 이제까지 분리된채 연구되던 생산과정과 노동력 재생산 과정을 통합하여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이를 통해 각종 도시계획 및 지역정책이 산업정책과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 인쇄업을 사례로 국지적 노동시장의 발달과 특성을 분석하려고 하고, 그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은 <그림 1>과 같다.

II. 인쇄업의 특성

1. 인쇄업의 시장수요 특성과 생산방식

인쇄란 다양한 정보를 담은 문서, 그림, 사진 등의 평면적인 화상을 여러 장 복제하는 수단이며, 인쇄업은 이러한 일을 하는 산업으로 정보의 전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대한인쇄문화협회, 1988, 64-65). 따라서, 인쇄업은 정보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여러 활동들과 긴밀한 유대를 필요로 하고, 인쇄물의 수요에 매우 민감하다. 인쇄물의 생산은 거의가 주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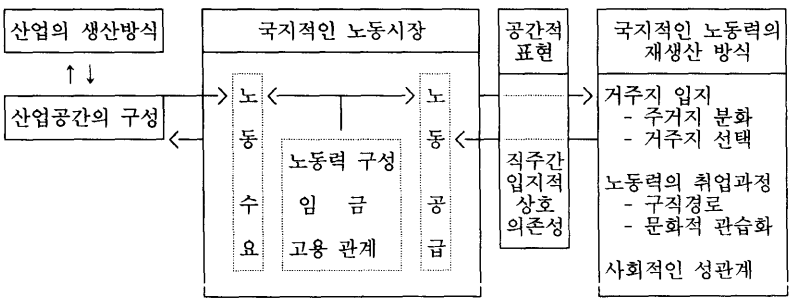

그림 1. 분석의 개념적 틀

쇄업은 전형적인 수주형 산업이다(대한인쇄연구소, 1993, 95). 그리고 인쇄업의 수주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소수의 대형인쇄업체들을 제외하고 인쇄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매우 영세하다.

인쇄물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각종의 도서, 교재 및 부교재, 행정관서나 기업체의 업무용 서식, 각종 선전물, 문구류, 잡지, 기업 홍보책자, 연구보고서, 상품의 포장지, 스티카, 상표, 유가증권 등이 모두 인쇄물에 해당된다. 이러한 제품의 다양성 만큼 수요도 다양하다. 대량의 생산이 필요한 제품이 있는 반면에, 소량의 한정된 양만을 생산하는 제품도 있다.

인쇄물의 시장수요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시장수요가 소량이면서 유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각종 홍보물, 사무용품, 서식 등의 인쇄물이 여기에 주로 해당되며, 대부분이 수요자의 직접적인 주문에 의해 생산된다. 둘째는 시장수요가 대량이고 안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교재, 부교재, 잡지 등 책자류의 인쇄가 주로 해당되며, 수요는 안정적이다.

수요에 따라 업체의 특성도 다르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사무용품과 상업, 선전용품 등과 같은 소량의 인쇄물을 주로 담당하고, 규모가 큰 업체들은 대량의 책자류 인쇄를 주로 담당한다.

시장수요의 상이성으로 인해 생산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는 수요의 특성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생산방식이 다르기 때이다. 인쇄업의 생산과정을 보면 책자인쇄의 경우 보통 원고→편집, 디자인→조판→제판→인쇄→제본의 공정을 거친다. 그런데, 규모가 큰 업체들은 이들 대부분의 공정을 기업내에 통합하여 가지고 있지만, 소규모의 영세한 업체들은 대부분 이 공정들 중에서 한, 두가지의 단계에 자신을 특화시키면서, 다른 업체들과의 긴밀한 분업 및 연계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인쇄업은 시장수요에 따라 상이한 생산방식과 기업조직을 지닌다. 1) 소량의 유동적인 수요의 제품을 주문에 의해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의 각 공정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리되어 특화된 기능을 가진 소규모의 업체들이 서로간의 긴밀한 분업관계를 형성하면서 생산을 수행한다. 2) 대량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량생산설비를 갖추고 거의 모든 생산과정을 기업내부에 두어 수직적, 수평적으로 통합된 기업조직을 구성한다.

2. 인쇄업의 노동과정과 노동시장의 특성

인쇄업은 앞에서 제시된 각 공정을 거치면서 제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이들 각 공정들은 나름의 독특한 노동과정 특성을 지니고, 이에 따라 노동력의 구성도 상이하다.

1) 원고를 기획하고 편집, 디자인하는 과정은 수요자와의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하고, 높은 지적 능력 및 창의력과 미적 감각을 요구한다. 노동자들의 학력이 높은 편이고, 다른 분야에 비해 여성의 비중이 높다. 2) 조판 과정은 출판, 편집자

표 1. 인쇄물의 제품형태별 생산액

단위:백만원

규모별	책자류	상업,선전용	사무용품	비지네스폼	지기인쇄물	기타	계
19인이하	54175	**70382**	**7584**	3794	4317	7242	197481
%	27.43	**35.64**	**29.16**	1.92	2.19	3.67	100.00
20-99인	**77997**	**145361**	54192	35726	42987	18532	374796
%	**20.81**	**38.78**	14.46	9.53	11.47	4.94	100.00
100인이상	**207726**	108252	1336	18249	42204	15846	393625
%	**52.77**	27.50	0.34	4.64	10.72	4.03	100.00
계	339898	323995	113112	57769	89508	41620	965902
%	35.19	33.54	11.71	5.98	9.27	4.31	100.00

자료 :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1991, 전국조합원업체 기본실태조사보고서.

의 지시에 따라 활자를 골라서 배열하거나, 청타나 사식기를 타자하여 인쇄될 형태로 판을 짜는 과정이다. 편집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필요하고, 활자를 고르거나 타자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숙련이 요구된다. 활판인쇄가 쇠퇴하고 전산사식이 보편화되면서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서, 현재는 대부분이 여성 노동력이다. 3) 제판 과정은 조판된 원고를 바탕으로 화학적, 물리적, 광학적 작용을 통해 인쇄의 원판을 만드는 과정이다. 색분해, 필름편집, 소부 등의 작업에서 정밀성과 숙련을 필요로 한다. 4) 인쇄 과정은 인쇄기를 이용해 직접 종이 위에 인쇄를 하는 과정이다. 기계의 운용과 잉크의 배합 등에서 많은 숙련을 요구한다. 대부분 남성 노동력이다. 5) 제본은 인쇄의 마무리 가공을 담당하는 과정으로, 매우 노동집약적이고 단순한 업무이다. 제본기계의 운용과 정비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숙련 노동력이고 여성의 비중이 높다.

이를 바탕으로 인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능하다. 1) 전문직 및 관리직 노동자로 출판, 편집, 디자인, 기획 등의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관리, 영업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2) 숙련 노동자는 조판, 제판, 인쇄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견습기간을 지난 사람들과 제본업무 종사자 중에서 기계의 운용을 담당하거나 작업의 책임을 지고있는 사람들이다. 3) 미숙련 노동자는 각 직종의 견습공 및 제본공정의 단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인쇄업은 수주산업으로써 인쇄물의 시장수요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시장수요의 특성이 노동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인쇄물의 시장수요가 유동적인 소규모 업체들은 고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보다는 유동적인 수요에 그때그때 적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반면, 제품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대규모 업체들은 고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생산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고용의 유동성이 달라진다. 이는 노동력의 유동률에서 잘 나타난다. <표 2>는 1991년 1월 한달 동안의 노동력 이동상황을 나타낸 것인데, 29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들이 한달 동안 11.49%의 가장 높은 유동률을 보이고,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력의 유동률은 점차 낮아진다.

III. 서울시 인쇄업의 공간구조와 노동시장

1. 서울시 인쇄업 산업공간의 특성

현재 서울시에서 인쇄업은 크게 4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집적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1) 종로구와 중구를 중심으로한 도심지역, 2) 도심에 인접한 마포구와 용산구 일대, 3) 성수동의 공단을 중심으로한 성동구 지역, 4) 구로, 영등포 지역에 서울시 인쇄업체 중 90%정도가 입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쇄업의 수주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종로, 중구를 중심으로한 도심지역에 전 사업체의 70% 정도가 입지하고 있어 강한 도심지향의 입지특성을 보여준다.

서울의 인쇄업이 크게 4곳의 집적지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이들 각 지역마다 인쇄업의 특성은 다소 다르다. 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도심지역에 입지하고, 큰 규모의 업체일수록 외곽지역에 입지한다. 특히, 종로, 중구의 도심지역과 구로, 영등포 지역이 대비되며, 이 두 지역은 인

표 2. 인쇄, 출판업의 기업규모별 노동력 유동률(1991. 1월 기준)

규모별	노동자수 (A)	취직자수 (B)	취직률(%) (B/A)	이직자수 (C)	이직률(%) (C/A)	유동률(%) (B+C/A)
10-29인	16572	901	5.44	1002	6.05	11.49
30-99인	15313	488	3.19	460	3.00	6.19
100-299인	14638	402	2.75	481	3.29	6.04
300-499인	6039	73	1.21	106	1.76	2.97
500인이상	15597	383	2.46	178	1.14	4.60
계	68159	2247	3.30	2227	3.27	6.57

자료 : 노동부, 1991,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 1월호.

표 3. 서울시 인쇄출판업의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1990)

단위: 개, 명, %

	사업체수	근로자수	평균규모
종로구	**499(12.82)**	**10398(15.13)**	20.84
중 구	**2235(57.41)**	**27236(39.62)**	12.19
성동구	**133(3.42)**	**3394(4.94)**	25.52
강남구	60(1.54)	1406(2.05)	23.43
강동구	11(0.28)	148(0.22)	13.45
서초구	43(1.10)	1195(1.74)	27.79
송파구	15(0.39)	178(0.26)	11.87
동대문구	57(1.46)	1297(1.89)	22.75
성북구	19(0.49)	294(0.43)	15.47
도봉구	18(0.46)	198(0.29)	11.00
중랑구	5(0.13)	56(0.08)	11.20
노원구	5(0.13)	137(0.20)	27.40
영등포구	**153(3.93)**	**4965(7.22)**	32.45
강서구	46(1.18)	1220(1.77)	26.52
구로구	**88(2.26)**	**5568(8.10)**	63.27
양천구	14(0.36)	217(0.32)	15.50
관악구	29(0.74)	407(0.59)	14.03
동작구	14(0.36)	190(0.28)	13.57
서대문구	70(1.80)	1075(1.56)	15.56
마포구	**181(4.65)**	**5462(7.95)**	30.18
용산구	**172(4.42)**	**3056(4.45)**	17.77
은평구	26(0.67)	642(0.93)	24.69
계	3893(100.0)	68739(100.0)	17.66

자료: 노동부, 1991,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보고서.

쇄업에 있어서 전혀 상이한 산업공간을 구성한다(오경숙, 1987, 14).

먼저, 도심지역에는 인쇄업의 생산공정에서 한, 두 단계에 특화된 소규모 업체들이 높은 집약도를 보이면서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있다. 여기에 주로 입지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소규모의 유동적인 인쇄물 시장수요에 의존하면서 주문이 들어올때 마다 업체들간의 연계 및 분업관계를 통해 주문된 물량을 생산해낸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지속적인 시장수요와 업체들간에 긴밀한 연계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업체들은 공간적으로 집적하게 된다. 특히 을지로의 인현동 일대는 수천개의 인쇄관련 업체들이 밀집하여 거대한 인쇄촌을 이루고 있다.[1)]

다음으로 구로, 영등포 지역에는 주로 대형의 종합인쇄업체들이 입지하여 있다. 대형인쇄업체들은 안정적인 대량의 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조판, 제판, 인쇄, 제본 등 대부분의 생산과정을 기업내부에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의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대량생산이 가능한 기계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종이와 인쇄물의 저장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넓은 부지의 확보가 이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도심지역과 구로, 영등포 지역 외에 성수동 지역과 마포, 원효로 지역은 이 극단적이고 전형적인 두 유형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산업공간의 전형적인 유형구분에 적합한 도심지역과 구로, 영등포 지역을 중심으로 두 지역을 비교분석하면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

2. 산업공간에 따른 차별적 노동시장의 형성

도심지역과 구로, 영등포 지역이 서로 상이한 산업공간의 특성을 지님에 따라 두 지역의 노동시장도 서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먼저, 도심지역은 소규모의 인쇄업체들이 서로간의 분업과 거래관계에 의존하면서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인쇄물의 시장수요나 기업환경의 변화에 매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체계에서는 고용관계의 유연성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Storper & Scott, 1989). 이는 시장수요가 매우 유동적이서, 기업의 입장에서 수요의 변화에 따라 고용인원을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고, 고용이 유동적이다.

반면, 구로, 영등포 지역의 업체들과 같이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시장수요를 확보하고 대부분의 생산과정을 기업내부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업체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을 내적으로 체계화, 효율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의 보상체계와 상벌체계를 갖추어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2)] 고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둔다.[3)] 따라서, 이러한 생산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의 이동이 적고, 고용이 덜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심지역과 구로, 영등포 지역에서 형성된 인쇄업의 국지적 노동시장이 서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노동력의 구성

두 지역은 노동력의 구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도심지역은 소규모의 다양한 업체들이 밀집하여 있기 때문에 인쇄와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며, 따라서 노동력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다. 반면, 구로, 영등포 지역은 대규모의 생산라인을 갖춘 인쇄공장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생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계화가 진전되어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표 4>는 직종별 노동력의 구성을 지역별로 비교한 것이다. 도심지역의 취업자들은 조판, 제판, 인쇄, 편집, 디자인 등과 같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구로, 영등포 지역 취업자들은 제판, 인쇄, 제본 등 한정된 몇 직종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종사 직종에서 두 지역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도심지역의 여성 노동자들은 편집과 조판과 같이 다소 전문적이고 숙련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많이 종사하는 반면, 구로, 영등포 지역의 여성 노동자들은 제본과 같은 숙련을 덜 필요로 하는 단순노동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표 4. 지역별, 직종별, 성별 노동력 구성

직장위치 / 직종	도심지역			구로, 영등포 지역		
	남	녀	계	남	녀	계
편 집	12	27	**39**	2		2
조 판	5	50	**55**	1	3	4
제 판	62	14	**76**	26		**26**
인 쇄	69		**69**	29	7	**36**
제 본	11	2	13	41	68	**109**
관리직	13		13			
사무직	8	18	26	1		1
영업직	14	4	18			
기 타	5		5		2	2
계	199	115	314	100	80	180

주: 무응답 : 도심지역 17명, 구로,영등포 14명
자료: 설문 조사

이와 함께 두 지역의 취업자들은 연령구성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표 5>에서 보여지듯이 도심지역은 20, 30대가 90% 이상인 반면, 구로, 영등포 지역에는 40, 50대가 거의 절반이다. 특히, 여성과 미숙련직 종사자들의 연령차이가 심하다. 이는 도심지역에는 편집, 디자인, 조판 등과 같은 다소 전문적이고 숙련된 작업에 젊은 여

표 5. 지역별, 성별, 연령별 노동력 구성

단위: 명(%)

직장위치 \ 연령	10-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세		60세이상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도심지역	8	(2.6)	**214**	**(69.0)**	**76**	**(24.5)**	9	(2.9)	2	(.6)	1	(.3)	310	(100)
전문직			**69**	**(71.9)**	**21**	**(21.9)**	4	(4.2)	1	(1.0)	1	(1.0)	96	(100)
남			**23**	**(48.9)**	**18**	**(38.3)**	4	(8.5)	1	(2.1)	1	(2.1)	47	(100)
여			**46**	**(93.9)**	3	(6.1)							49	(100)
숙련직	3	(1.8)	**112**	**(65.5)**	**50**	**(29.2)**	5	(2.9)	1	(.6)			171	(100)
남			**57**	**(51.8)**	**47**	**(42.7)**	5	(4.5)	1	(.9)			110	(100)
여	2	(3.4)	**54**	**(93.1)**	2	(3.4)							58	(100)
미숙련직	5	(11.6)	**33**	**(76.7)**	5	(11.6)							43	(100)
남	4	(11.8)	**26**	**(76.5)**	4	(11.8)							34	(100)
여	1	(12.5)	**7**	**(87.5)**									8	(100)
구로영등포	1	(.6)	**51**	**(29.1)**	42	(24.0)	**50**	**(28.6)**	31	(17.7)			175	(100)
전문직			2	(66.7)	1	(33.3)							3	(100)
남			2	(66.7)	1	(33.3)							3	(100)
숙련직			**29**	**(34.5)**	**27**	**(32.1)**	19	(22.6)	9	(10.7)			84	(100)
남			**22**	**(34.4)**	**25**	**(39.1)**	12	(18.8)	5	(7.8)			64	(100)
여			**6**	**(35.3)**	2	(11.8)	**5**	**(29.4)**	4	(23.5)			17	(100)
미숙련직	1	(1.1)	20	(22.7)	14	(15.9)	**31**	**(35.2)**	**22**	**(25.0)**			88	(100)
남	1	(3.6)	**10**	**(35.7)**	4	(14.3)	7	**(25.0)**	6	(21.4)			28	(100)
여			10	(16.7)	10	(16.7)	24	**(40.0)**	**16**	**(26.7)**			60	(100)

주: 무응답 : 도심지역 21명, 구로,영등포 19명
자료 : 설문 조사

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반면, 구로, 영등포 지역에는 제본과 같은 단순작업에 인근 주택가의 주부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고용관계

두 지역은 고용관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도심지역의 노동시장은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고용관계를 지니고 있는 반면, 구로, 영등포 지역의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지역 취업자들의 이직률을 비교해보면 잘 드러난다.

먼저, 두 지역간에 이직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표 6>과 같이 지난 2년간의 이직횟수를 조사해 보았는데, 두 지역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도심지역 취업자들은 지난 2년간 평균 1.2회 정도 직장을 이동하였고, 구로, 영등포 지역의 취업자들은 평균 0.6회 이동하였다. 도심지역 취업자들이 구로, 영등포 지역 취업자에 비해 약 2배 정도 이직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서울시 인쇄업 종사자들의 지난 2년간 평균 이직회수

직장 위치 / 직종	도심 지역		구로,영등포		서울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문직	0.8	1.0	0.3	0.6	0.8	0.9
숙련직	1.4	1.6	0.5	0.9	1.1	1.4
미숙련직	1.0	1.0	0.6	0.9	0.8	1.0
전 체	1.2	1.4	0.6	0.9	1.0	1.3

자료 : 설문 조사

이러한 고용관계의 특성은 노동자들의 취업과 구직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도심지역보다 구로, 영등포 지역에 높은 연령층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밝혔었다. 그런데, 대부분 연령과 경력이 오래될 수록 안정된 고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고경력이고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고용상태가 유동적인 도심지역의 업체 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관계를 지니고 있는 구로, 영등포 지역의 업체들을 더 선호한다. 이와 관련하여 P업체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고용관계가 소규모 업체 보다는 대규모 업체에서 안정적이지요. 퇴직금이나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고... 그래서, 30대 이후의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업체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업체에 있는 고경력자 일수록 이직을 안할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력이 길기 때문에 대우도 좋고 안정된 직장을 잃기 싫어서지요... (1993. 4. 30, 면담자료)

이러한 경향은 도심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이직과정은 초기에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몇번 직장 옮기면 금방 직급도 올라가고, 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력이 증가하면 이러한 이직에 따른 이득이 감소한다. 을지로의 인쇄소에서 근무하는 20대 후반의 남자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젊어서 가장 돈벌기 좋은 직업이 인쇄업이에요. 한 곳에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으면서 기술 약간 배우면 다른 데로 옮기면서 3년 정도 된다고 뻥튀겨요. 그런 식으로 몇 번하면 금방 돈 벌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예요. 보통 인쇄에서 경력 5년 정도면 조기장이나 기장급인데 그 정도면 더 이상 올라갈데도 없고, 실력도 빤히 드러나구요.... (1993. 4. 10, 면담자료)

그리고 잦은 이직에 의한 고용의 불안정은 노동자에게 항상 부담이다. 따라서, 도심지역의 노동자들은 보통 30대 중반이 되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새로이 진로를 모색한다고 한다. 첫째가 독립해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이고, 둘째는 재정적 문제 등으로 인해 독립이 힘들 경우 고용이 안정적인 구로, 영등포 등지의 큰 업체로 이동하는 것이다. 셋째는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도심지역에도 오랜 경력을 가지면서 따로 독립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심지역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의 상당 수가 구로, 영등포 지역의 대규모 업체로 이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도심지역의 취업자 보다 구로, 영등포 지역의 취업자들이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와 함께 작업의 규율이나 분위기도 두 지역간에 상이하다. 도심지역의 업체들은 대부분 소

규모의 영세업체들로서, 기업주가 종업원들과 같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사관계가 인간적인 유대에 의해 형성되어 있고, 작업조건이나 근무체계가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4] 일감이 많으면 쉽게 잔업이나 철야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약간의 지각이나 태업은 눈감고 넘어간다. 급여의 지급도 기본급, 수당 등이 공식적인 규정에 의해 정해져있지 않고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주고, 조금 덜 주고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구로, 영등포 지역의 업체들은 대규모이고 비교적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작업조건이나 근무체계가 엄격한 편이다. 수당의 지급이나 잔업, 휴무의 실시도 체계적인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표 7>에서도 나타나듯이 회사의 작업규율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느끼는 방식이 두 지역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도심지역 취업자들에 비해 구로, 영등포 지역의 취업자들이 회사의 작업규율에 대해 더 엄격하다고 느끼고 있다.

Ⅳ. 국지화된 노동력 재생산과 직장-주거지의 입지적 상호의존성

앞 장에서 서울시의 인쇄업이 생산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산업공간으로 구성되고, 또 각 산업공간에서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는 국지적 노동시장이 발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특정의 생산방식에 적합한 국지적 노동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재생산 방식이 그에 상응하게 지역적으로 조건지워져야 한다. 따라서, 노동력의 국지화된 재생산 방식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국지적 노동시장과 대도시내 산업공간의 형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장에서는 차별적으로 형성된 서울시 인쇄업의 두가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지화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 주거지의 입지

1) 인쇄업 종사자의 거주지

노동력의 재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거이다. 따라서, 국지적 노동시장에서의 지역화된 노동력의 재생산을 파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의 입지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인쇄업 종사자들의 거주지 분포를 조사해 보았다. <표 8>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인쇄업 종사자들의 거주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서울전체의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았을때, 몇몇 지역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성동구, 도봉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그리고 경기도의 부천시에 인쇄업 종사자들의 거주지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인쇄업 종사자들의 집중 거주지역들은 타 지역에 비해 인쇄업의 집적지와 상대적으로 근접한 지역들이고, 또한 서울시와 수도권에서 저소득층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인식되는 지역들이다.

도심지역과 구로, 영등포 지역 취업자들을 구분하여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거주지 분포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도심지역 취업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들은 주로 강북지역에 있으며, 특히 중구와 인접한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지역에 인쇄업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도심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인쇄업 종사자들의 거주지가 종로, 중구

표 7. 서울시 인쇄업 종사자들의 작업규율에 대한 응답

단위: 명(%)

구 분	매우 엄격	약간 엄격	그저그렇다	약간 덜 엄격	전혀 안 엄격	계
도심지역	24 (9.6)	60 (24.1)	78 (31.3)	71 (28.5)	16 (6.4)	249 (100)
구로영등포	31 (16.4)	73 (38.6)	52 (27.5)	29 (15.3)	4 (2.1)	189 (100)

주: 무응답 : 도심지역 82명, 구로, 영등포 5명
자료 : 설문조사

표 8 . 서울시 인쇄업 종사자들의 거주지 분포

단위: 명(%)

지 역	서울 전체		도심 지역		구로,영등포 지역	
	거주자수	(비율)	거주자수	(비율)	거주자수	(비율)
종로구	8	(1.9)	7	(2.2)	1	(0.6)
중 구	11	(2.1)	10	(3.2)	0	(0.0)
용산구	5	(0.9)	4	(1.3)	0	(0.0)
성동구	**36**	**(6.8)**	**32**	**(10.)**	3	(1.7)
동대문구	16	(3.0)	14	(4.5)	0	(0.0)
중랑구	9	(1.7)	8	(2.6)	0	(0.0)
성북구	22	(4.2)	**22**	**(7.1)**	0	(0.0)
도봉구	23	(4.3)	**19**	**(6.1)**	2	(1.1)
노원구	13	(2.5)	10	(3.2)	2	(1.1)
은평구	18	(3.4)	9	(2.9)	6	(3.4)
서대문구	18	(3.4)	13	(4.2)	5	(2.9)
마포구	24	(4.5)	10	(3.2)	9	(5.1)
양천구	8	(1.5)	3	(1.0)	5	(2.9)
강서구	16	(3.0)	4	(1.3)	11	(6.3)
구로구	**57**	**(10.8)**	14	(4.5)	**41**	**(23.4)**
영등포구	**31**	**(5.9)**	14	(4.5)	**15**	**(8.6)**
동작구	20	(3.8)	13	(4.2)	7	(4.0)
관악구	**35**	**(6.6)**	17	(5.4)	**17**	**(9.7)**
서초구	7	(1.3)	5	(1.6)	0	(0.0)
강남구	6	(1.1)	3	(1.0)	2	(1.1)
송파구	7	(1.3)	4	(1.3)	0	(0.0)
강동구	3	(0.6)	3	(1.0)	0	(0.0)
인천시	23	(4.3)	13	(4.2)	9	(5.1)
의정부시	2	(0.4)	2	(0.6)	0	(0.0)
광명시	22	(4.2)	2	(0.6)	17	(9.7)
안산시	5	(0.9)	2	(0.6)	1	(0.6)
구리시	3	(0.6)	2	(0.6)	1	(0.6)
미금시	1	(0.2)	1	(0.3)	0	(0.0)
군포시	3	(0.6)	1	(0.3)	0	(0.0)
의왕시	1	(0.2)	0	(0.0)	1	(0.6)
양주군	1	(0.2)	1	(0.3)	0	(0.0)
남양주군	1	(0.2)	1	(0.3)	0	(0.0)
수원시	1	(0.2)	1	(0.3)	0	(0.0)
고양시	18	(3.4)	13	(4.1)	1	(0.6)
성남시	9	(1.7)	9	(2.9)	0	(0.0)
안양시	11	(2.1)	7	(2.2)	3	(1.7)
부천시	33	(6.2)	18	(5.7)	14	(8.0)
계	567	(100)	312	(100)	175	(100)

주: 도심지역의 직주간 거리 10.1km.
구로, 영등포지역의 직주간 거리 6.6km
자료 : 설문조사

의 직장을 중심으로 상당한 지리적 응집력을 가지고 분포하고 있고 직장-주거지 사이의 평균거리는 10.1km 정도이다. 그런데, 구로, 영등포 지역 취업자들의 거주지는 구로, 영등포 지역을 중심으로 더 응집되어 있는데 특히,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광명시, 부천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 종사자들의 직장과 주거지 사이의 평균거리는 6.6km로 도심지역 종사자들 보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구로, 영등포 지역이 도심지역보다 직주간의 지리적 응집력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구로, 영등포 지역이 도심지역보다 직주간의 지리적인 응집력이 더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장에서 밝혔던 것처럼, 도심지역의 노동시장이 구로, 영등포 지역의 노동시장 보다 고용관계에서 더 유동적이다. 그런데, 고용관계가 더 유동적인 도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고용관계가 보다 안정적인 구로, 영등포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職住가 더욱 근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고용이 유동적일수록 직주가 근접하는 성향이 있다는 Scott(1988a)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는 서울의 공간구조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방식이 서구 도시들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로, Scott가 유동적인 도심부 노동시장에서 직주간의 거리가 짧게 나타남을 주장하게된 배경에는 서구의 도시들이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에 외국 이민자나 흑인과 같은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형성되는 공간구조를 지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서구의 도시들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주거가 도심지역보다는 주변지역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결국, 이를 통해 직장과 주거지 사이의 거리관계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공간적 특성이 생산과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노동력 재생산 과정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설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주거지의 결정과정

거주지의 입지결정에 대한 분석은 분석의 수준을 2개의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주거지 입지의 거시적이고 구조적 틀로 파악해야 되는 것으로, 도시공간구조 속에서 주택시장의 작동을 통해 나타나는 거주지 분화의 양상이다. 둘째는 미시적 수준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이

러한 구조적 틀 속에서 나타나는 개별 행위주체들의 주거 선택과정이다.

먼저, 거주지 분리의 측면을 살펴보겠다. 지역별,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주택의 공급구조는 계층별, 집단별로 주거지가 분화되는 현상으로 표출된다. <그림 2>와 <그림 3>은 1990년인구, 주택 총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생산직과 전문, 관리, 사무직 종사자들이 탁월하게 분포하는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이 중 생산직 종사자의 탁월지역 분포는 인쇄업 종사자들의 거주지 분포와 많은 유사점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계층과 직업에 따라 주로 분포하는 지역은 서로 상이하다. 결국, 이러한 주거지 분화의 틀 안에서 인쇄업 종사자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도심지역의 취업자들 보다는 구로, 영등포 지역 취업자들이, 그리고 전문직 보다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거를 직장과 더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주거지의 입지에는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과 함께 개별 노동자들의 주거선택행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쇄업 종사자들이 실제로 주거를 선택할 때 어떠한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부모집이나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신의 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떠한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는지를 설문을 통해 조사해 보았다. 이를 위해 주거지의 선택요인을 1) 집값 또는 임대료, 2) 본인의 출퇴근 교통, 3) 배우자의 출퇴근 교통, 4) 자녀의 교육, 5) 생활환경, 편익시설, 6) 친지, 부모와 근접성, 7) 생활의 본거지, 8) 내집 마련의 8 가지로 정하고, 이 각 요인에 대해 거주지 선택시 어느정도의 중요성을 부과하여 고려하였는지를 9점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나서, 각 요인별로 응답자가 답한 값을 모두 합하고, 이를 응답한 사람들의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 평균값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표 9>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인쇄업 종사자들은 주거를 선택할 때 주거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다음으로 본인의 출퇴근 교통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인쇄업 종사자들이 주거를 선택할때, 기본적으로 도시 내에서 자신이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주거가 공급되는 곳들 중에서 출퇴근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주거비용과 출퇴근 교통은 도심지역 취업자들과 구로, 영등포 지역 취업자들에게 모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두 지역이 서로 상이한 선호를 보여주고 있다. 도심지역 취업자들은 생활환경, 편익시설의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구로, 영등포 지역의 취업자들은 내집마련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지역의 노동력 구성의 차이로 인해, 주거에 대한 선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도심지 역에는 일반적으로 주거의 선택에서 주거환경의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전문, 관리직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생활환경, 편익시설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구로, 영등포 지역에는 가구의 생애주기로 볼때 자가주택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한 높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집마련 요소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지화된 취업과정

앞에서 국지적 노동시장에서 주거지가 입지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주거지의 입지과정과 함께 직장이 선택되는 과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이 취업하게 되는 경로, 노동자들의 구직과정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 그리고 노동자들의 직장에 대한 선호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관습 등에 따라 직업과 직장의 종류와 그 공간적인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지화된 노동력의 재생산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1) 취업경로

기업주와 노동자들에 의한 구인, 구직의 과정은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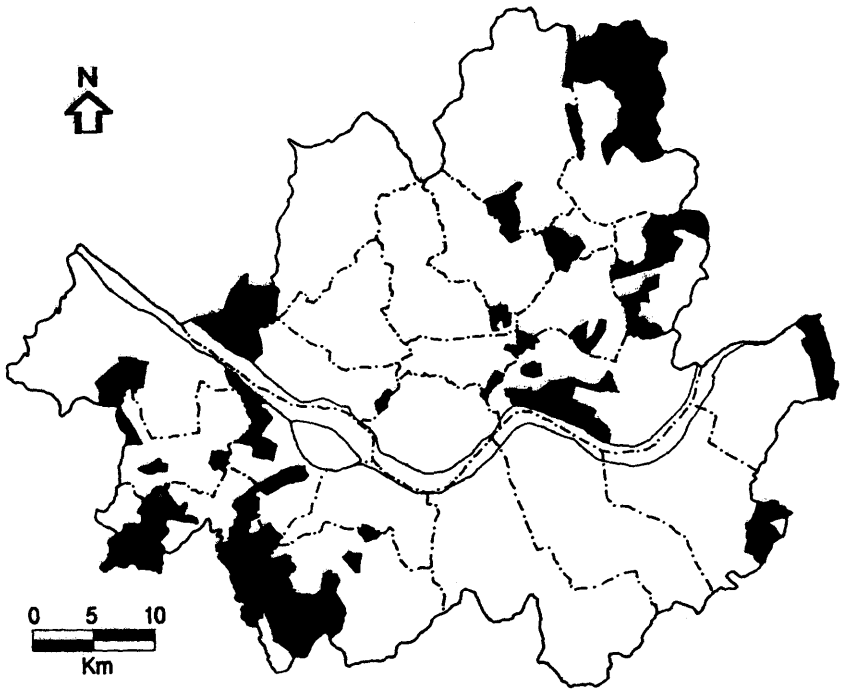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생산직 종사자의 탁월분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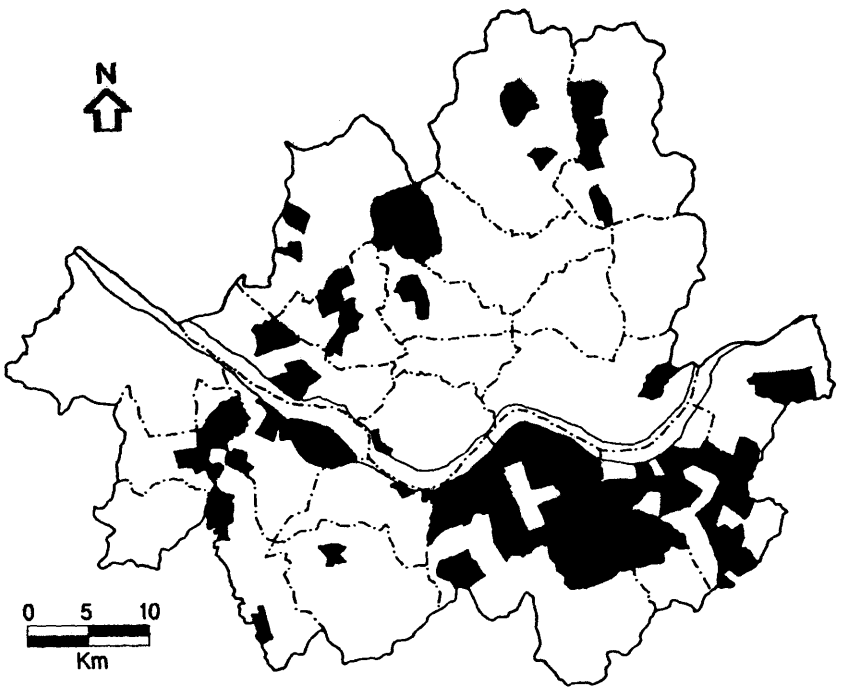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시 전문, 관리, 사무직 종사자의 탁월분포지역

표 9. 지역별 취업자의 주거 선택시 고려요인

직장위치 / 고려 요인	도심지역		구로, 영등포		서울전체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집값 이나 임대료	**3.64**	**1**	**5.38**	**1**	**4.34**	**1**
본인의 출퇴근 교통	**3.19**	**2**	**4.69**	**2**	**3.81**	**2**
배우자의 출퇴근 교통	0.88	8	2.23	8	1.37	8
자녀 교육	1.38	7	3.31	6	2.11	7
생활환경· 편익시설	**2.71**	3	4.17	4	3.31	**3**
친지·부모와 근접성	2.28	4	3.36	7	2.73	6
생활의 본거지	2.27	5	3.88	5	2.90	5
내집 마련	2.12	6	**4.53**	3	3.06	4

자료 : 설문조사

지적 노동시장의 공간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직업을 탐색하고 취업하는 경로에 따라 그 공간적 결과는 상이하다(Simpson, 1980; 1987). 이와 관련하여 <표 10>은 지역별로 취업자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취업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두 지역 모두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취업의 비중이 높지만,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도심지역의 취업자들이 구로, 영등포 지역의 취업자들에 비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취업하는 비중이 더 크다. 이는 도심지역의 노동시장에 편집, 디자인, 전산 사식, 사무직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을 통한 정규적인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업방식에 따라 노동시장의 공간적인 범위가 달라지고, 이는 직주간 거리의 차이로 나타난다. 공식적인 취업경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다 넓은 공간적 범위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 비공식적인 취업경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취업 정보의 획득에서 공간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취업정보 확산의 공간적 범위가 차이가 나면, 노동자들의 직주간 거리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보다 넓은 범위에서 취업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면 자신의 주거로 부터 보다 먼 거리에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취업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좁다면 자신의 주거로 부터 먼 거리에 있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표 11>에서 잘 나타나는데, 공식적 경로를 통한 사람들의 직주간 거리

표 10. 지역별 취업경로

취업경로 / 직장	공식				비공식						계
	1	2	3	소계	4	5	6	7	8	소계	
도 심 지 역	22	41	69	6	3	174	31	17	7	232	301
	7.3	13.6	2.0	22.9	1.0	57.8	10.3	5.6	2.3	77.1	100
구로, 영등포	1	3	1	5	0	144	4	26	2	176	181
	0.6										100

주 : 취업경로
1.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의 광고
2. 학교·직업훈련기관의 소개
3. 직업소개소의 소개
4. 벽이나 전봇대에 붙은 구인광고
5. 친지·친구의 소개
6. 현재의 직장에서 스카웃
7. 직접 회사 방문
8. 기 타

무응답 : 도심지역 30명, 구로·영등포 13명
자료 : 설문조사

표 11. 취업방식별 직주간 거리

단위 : km

취업방식 / 직장위치	공 식		비 공 식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도심 지역	12.8	7.0	9.4	6.0	10.2	6.4
구로,영등포	8.4	5.4	6.3	5.6	6.4	5.6

자료: 설문조사

가 도심지역이든 구로, 영등포 지역이든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심지역에 공식적인 취업경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도심지역 취업자들의 직주간 거리가 길어지는 한 요인이다.

국지적인 노동시장의 형성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역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구인과 구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Hanson & Pratt, 199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 방식에서는 친지나 친구를 통한 취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친지나 친구를 어떠한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 알게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직장을 소개해준 친지, 친구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표 12>는 직장을 소개해준 친지, 친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것이다. 도심지역이든 구로, 영등포 지역이든 기본적으로 직장 동료를 통한 취업의 비중이 가장 높아, 직업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순위에서는 두 지역이 다소 다른데, 도심지역은 거래처나 인근업체의 사람, 구로, 영등포 지역은 집안 친척이나 동네 사람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데, 도심지역의 경우 이직이 빈번하고 인근 업체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이외에 인근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취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구로, 영등포 지역에는 미숙련 주부 노동력의 비중이 높으며 이들의 경우 대부분 직장에 인근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네트웍이 구인, 구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로, 영등포 지역의 노동시장이 노동력의 재생산에서 인근의 지역사회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도심지역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재생산이 인근의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공간적으로 집적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2) 국지적인 고용관계의 관습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고용관계는 오랜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 문화, 의식에 관습화(habituation)되어 노동자들의 선호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torper & Scott, 1989).

표 12. 직장을 소개해준 친지, 친구와 관계

관계 / 직장위치	학 교 동 창	직 장 동 료	같은 동네사람	집안의 친 척	거래처,인근 업체의 사람	같은모임 회 원	기 타	계
도심 지역(명)	16	**40**	12	25	**30**	15	3	141
%	11.3	**28.4**	8.5	17.7	**21.3**	10.6	2.1	100
구로,영등포(명)	1	**74**	**27**	**28**	10	5	4	149
%	.7	**49.7**	**18.1**	**18.8**	6.7	3.4	2.7	100

자료: 설문조사

표 13. 서울시 인쇄업 종사자들의 직장 선택시 고려요인

고려요인 \ 직장위치	도심 지역		구로,영등포		서울 전체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임금 수준	5.32	5	6.58	1	5.82	4
출퇴근 교통	4.97	6	5.75	6	5.28	6
작업조건,분위기,인간관계	6.12	2	6.04	4	6.21	2
쾌적한 작업환경	5.47	4	6.19	3	5.79	5
회사의 발전전망	6.17	1	5.98	5	6.26	1
일자리의 안정성	5.76	3	6.44	2	6.13	3

자료: 설문조사

인쇄업에서도 도심지역과 구로, 영등포 지역은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선호와 행위에서 서로 상이하다. 을지로의 한 인쇄소에서 옵셋기장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 노동자의 말은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 큰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큰 곳에서 일하고, 나 처럼 작은 곳에서 일하던 사람은 계속 이런 데서 일해요. ... 작은 데서 일하던 사람들은 큰 곳에 가면 깝깝해서 일 못합니다. 큰 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또 작은 곳에서 일 못하구요. 나도 옛날에 한번 성수동에 있는 좀 큰 공장에서 일한 적 있는데요, 지각 약간 해도 안되고, 재미도 없고, 내 성미에는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을지로로 왔지요.... (1993. 4. 3 면담자료)

결국, 두 지역 사이의 노동시장의 차이가 노동자들의 문화적 관습과 생활태도, 선호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관계가 재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보다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노동자들이 직장을 선택할때 어떠한 요소를 중시하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1) 임금수준, 2) 출퇴근 교통, 3) 작업조건, 분위기, 인간관계, 4) 쾌적한 작업환경, 5) 회사의 발전전망, 6) 일자리의 안정성이라는 6개 요인에 대해서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앞에서 주거선택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표 13>으로 나타내었는데, 지역에 따라 직장 선택시 고려요인이 다소 다르다. 도심지역의 취업자들은 회사의 발전전망이나 작업분위기,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한 반면, 구로, 영등포 지역의 취업자들은 임금수준, 일자리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선호는 두 지역의 노동시장과 고용관계의 차이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도심지역의 인쇄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여서 작업시 관리자나 기업주와 거의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주위 동료들의 수도 작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인간관계가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직장 동료나 인근 업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취업시 인간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작업조건,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반면, 구로, 영등포 지역의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노무관리를 실시하고 있서, 노동자들은 회사에서의 인간적 관계 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이 높은 곳을 선호하고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인 성관계(gender relation)와 국지화된 노동력 재생산

남녀간의 사회적인 관계와 가부장적인 관습은 국지적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력의 재생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다음의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인쇄업 종사자들의 남녀별 직주간 거리를 조사해 보면, <표 14>에 나타나듯이 서울 전체적으로 남자의 직주간 거리는 9.5km, 여자는 8.5km로 나타나 여자의 직주간 거리가 다소 짧다. 그런데, 이를 기혼과 미혼으로 세분하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지는데, 남자는 기혼이든 미

표 14. 성별, 결혼여부별,지역별 직주간 거리

단위 : km

지역 / 성별	서울 전체			도심 지역			구로,영등포 지역		
	기혼	미혼	계	기혼	미혼	계	기혼	미혼	계
남자	9.9	9.2	9.5	10.8	9.5	10.1	7.5	7.9	7.7
여자	6.8	9.6	8.5	11.6	10.0	10.3	5.1	5.4	5.2
계	8.8	9.4	9.1	11.0	9.8	10.2	6.3	7.1	6.5

자료: 설문조사

혼이든 직주간 거리에 별 차이가 없지만, 여자는 기혼인지 미혼인지에 따라 직주간 거리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기혼여성 취업자들의 직주간 거리가 월등하게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가 짧다는 것, 특히 기혼여성 취업자의 경우에 더욱 짧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기혼여성이 지니는 이중적인 역할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즉,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가사노동을 담당하여 왔는데, 이 여성이 직장을 가짐에 따라 가사노동 외에 직장에서의 노동 까지도 담당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러한 이중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여성들로 하여금 가능하면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Werkerle & Rutherford, 1989; Blumen & Kellerman, 1990; Gordon et al, 1989; Pratt & Hanson, 1988; Johnston-Anumonwo, 1988; Hodge, 1990; 심기정, 1993).

그런데, 직주간 거리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위에서 제시된 것과는 다소 다른 사실이 드러난다. 동일 지역에서는 미혼이든 기혼이든 직주간 거리에서 차이가 거의 나지 않으며, 도심지역에서는 기혼 여성의 직주간 거리가 오히려 남자나 미혼 여성 보다도 더 길다. 또한, 구로, 영등포 지역에서도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간에 직주간 거리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 즉,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기회가 어떠한 직종에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제공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여성이 취업을 원한다고 해서 아무 직업이나 그리고 아무곳에서나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쇄업에서 여성의 일자리 중에서 다소의 숙련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일은 도심지역에서, 반면 숙련이 필요치 않은 일은 구로, 영등포 지역에서 많이 제공된다. 게다가 서울의 도시공간구조에서 주거지역은 대부분 도심 보다는 도시의 주변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다소의 숙련된 일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여성은 자기가 결혼을 하고 이중적인 역할을 지니더라도 집으로 부터 먼거리에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숙련을 지니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도심지역보다는 구로, 영등포 지역의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더 용이하고,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집과 가까운 직장에서 단순작업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도심지역의 다소 숙련된 일자리에 취업하는 여성은 결혼을 했더라도 긴 통근거리를 감당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의 이중적 역할부담에 따른 여성 노동력 공급의 제약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산업의 입지에 따라 취업의 기회가 어떻게 제공되는가 하는 것도 여성들의 직주간 거리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4. 토론 : 직장과 주거지의 입지적 상호의 존성

이제까지 서울시의 도심지역과 구로, 영등포 지역에 형성된 인쇄업의 두 상이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이 어떻게 국지화되어서 이루어지는지를 주거지의 입지, 노동자들의 구직과정,

사회적인 성관계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노동력의 재생산이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국지화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노동력의 공급이 어떠한 지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국지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물질적인 기반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도시공간에서 노동자들의 직장과 주거지가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입지하려는 경향으로 표출된다.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구체적인 노동력 재생산의 방식이 직주간의 입지적 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15>에서 지역별, 성별, 직종별로 직주간의 평균거리를 조사해 보았다. 직종별로 보았을때 서울전체로는 전문직이 11.4km로 가장 길고, 다음이 8.7km인 숙련직, 그 다음이 7.7km인 미숙련직의 순으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직주간 거리의 차이는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다. 도심지역에서는 서울전체의 양상과는 달리 미숙련직이 숙련직 보다 훨씬 먼 직주간 거리를 나타내는 반면, 구로, 영등포 지역은 대체적으로 서울전체의 양상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직종간의 직주간 거리차이는 더욱 심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별로도 뚜렷한 직주간 거리의 차이를 보인다.

표 15. 인쇄업 노동자들의 직주간 거리

단위 : km

직장 위치 / 직업 유형	도심 지역		구로·영등포		서울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문직	11.7	7.2	10.9	7.1	11.4	6.9
남	12.3	7.6	10.9	7.1	12.2	7.5
여	11.0	6.7	.	.	10.6	6.3
숙련직	8.8	5.3	7.5	6.0	8.7	6.0
남	8.4	5.4	8.0	6.3	8.5	6.0
여	9.5	5.1	6.1	5.2	9.1	6.1
미숙련직	11.7	7.4	5.7	5.3	7.7	6.7
남	12.2	7.4	6.6	6.5	9.7	7.6
여	9.7	8.2	5.2	4.6	5.8	5.3
전 체	10.1	6.4	6.6	5.7	9.1	6.6
남	10.1	6.7	7.7	6.4	9.5	6.8
여	10.2	6.1	5.4	4.7	8.5	6.2

자료: 설문조사

직종과 성에 따른 직주간 거리의 차이와 함께 지역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도심지역이 구로, 영등포 지역보다 직주간 거리가 훨씬 길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지역의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재생산의 방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인데, 이를 요약해보면 1) 인쇄업 종사자들에게 적합한 주택의 공급이 서울의 도심 보다는 주변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2) 노동력의 구성에서 도심지역이 전문직과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반면, 구로, 영등포 지역에는 미숙련직에 종사하는 기혼의 여성노동력이 많으며, 3) 구인, 구직을 위한 사회적인 네트웍이 도심지역보다도 구로, 영등포 지역에서 해당 지역사회와 더 밀접하게 결합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지적 노동시장에서 직주간의 입지적 관계는 지역적인 생산방식이나 고용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된다기 보다는 지역적인 노동력의 구성과 이들의 재생산 방식을 통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산업의 입지 및 생산방식이 노동력의 재생산 방식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국지적 노동시장의 매카니즘을 분석하여, 도시에서의 산업발달과 노동자들의 지역적인 삶의 방식이 도시의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특히, 국지적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직장과 주거지가 입지적으로 상호관계되는 방식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인쇄업이 사례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인쇄업은 두가지 유형의 업체들로 구성되는데, 그 하나는 소량의 유동적인 생산물을 담당하는 소규모 업체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량생산을 주로 하는 대규모 업체들이다. 이들 소규모 업체들과 대규모 업체들은 서로 상이한 생산방식을 가지며, 생산방식의 차이로 인해 서울에는 도심지역과 구로, 영등포 지역에 두가지 상이한 인쇄업의 산업공간이 형성된다. 도

심지역에는 소규모 업체들이 집적하여 있는 반면, 구로, 영등포 지역에는 주로 대규모 업체들이 입지하고 있다.

둘째, 이들 두 지역의 국지적 노동시장은 서로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도심지역의 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의 구성이 복잡,다양하고, 높은 이직률을 보이며, 고용관계가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 반면, 구로, 영등포 지역의 노동시장은 생산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지닌다. 이러한 노동시장 특성의 차이는 생산방식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셋째, 국지적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어떠한 입지적 관계를 가지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생산방식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의 측면에서도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노동자들의 거주지 입지, 2) 노동자들의 취업방식, 직장에 대한 선호 그리고 문화적 관습에 따른 노동력의 국지화된 취업과정, 그리고 3) 사회적 성관계가 국지화된 노동력의 재생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들임을 밝혔다.

넷째, 노동력의 국지화된 재생산 과정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주거지와 직장간의 입지적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력 재생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 도심지역보다는 구로, 영등포 지역 노동자들의 직장과 주거지가 더욱 근접하여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도시에서 산업의 발달은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재생산과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생산과 재생산의 통합을 통해 국지적 노동시장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도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생산의 과정과 재생산의 과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각이 요구된다. 둘째, 도시공간에서 직장과 주거지는 기본적으로 근접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고, 각종의 산업정책과 주택정책도 이에 맞추어서 실시되어야 한다.

< 註 >

1) 서울시 중구의 제조업 입지에 대한 형기주(1987, 17)의 연구에서 이러한 사실이 잘 증명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구에 입지하고 있는 공장들이 어떠한 입지요인을 선호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서비스의 획득, 교통편의, 기업간 연계, 시장접근 등의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인쇄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적용에 한계가 있지만, 중구에 입지하고 있는 공장의 절반 이상이 인쇄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2) 대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인쇄업 노동자들의 월임금 내역을 보면, 기본급의 비중이 매우 낮다. 이는 노동자들이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잔업,특근 등을 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3) 구로공단의 Y 업체의 경우, 비수기에 있어서 매월 45일치의 기본급을 한달치 임금으로 준다고 한다. 비수기에는 일감이 없기 때문에 잔업이나 특근이 거의 없고 그에 따른 수당이 없어 기본급만을 노동자들이 월임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노동자들의 생계가 곤란해져서 다른 업체로의 이직이 많아지게 된다. 기업은 이를 막고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보상체계를 사용한다.

4) 이러한 노사관계는 고용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지역 인쇄노조의 한 간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 "사장과 같이 매일 얼굴 마주보며 일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형님,아우 하면서 사이가 좋으면 일할 맛 나지요. 그런데, 뭔가 잘못되어서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 그때는 정말 같이 일 못합니다. 서로 꼴 보기 싫으니까요. 그때는 그 직장 그만두고 나와야죠. 그래도 을지로 바닥에서는 금방 취직되니까..."

즉, 기업주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잘못 되었을 경우 중재나 완충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이 도심지역 취업자들의 이직을 증가시키는 한 이유이기도 하다.

< 參考文獻 >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1982, 인련 10년사.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 연합회, 1991, 전국 조합원 업체 기본실태조사보고서.

대한인쇄문화협회, 1988, 인협 40년사.

대한인쇄연구소, 1993, 인쇄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 1992, 서울인쇄소식 62호.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 1992, 서울인쇄조합사.

심기정, 1993, 서울 시민의 통근 패턴에 관한 연구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경숙, 1987, 우리나라 인쇄업의 지역구조와 그 입지변동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협, 1993, 서울시 의류업체의 하청생산의 강화에 따른 입지변화와 노동력구성의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주연, 1989, 서울시 직업별 거주지 분리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우긍, 1991, "서울의 통근과 거주지 선택," 지리학 26(1), 46-61.

형기주, 1987, "수도권 내부의 공업입지 동태," 동국지리 제 8호, 3-24.

Blumen, O., and A., Kellerman, 1990, "Gender differences in commuting distance, residence, and employment location: metropolitan haifa 1972 and 1983," *Professional Geographer* 42(1), 54-71.

Bowlby et al., 1989, "The geography of gender," in R. Peet and N. Thrift (eds.), *New models in geography: The political-economy perspective*, Unwin Hyman.

Fischer, M. M. and P. Nijkamp, 1987, "Spatial labour market analysis: relevance and scope," in M. M. Fischer and P. Nijkamp (eds.), *Regional Labour Markets*, North-Holland.

Gordon et al, 1989, "Gender Differences in Metropolitan Travel Behaviour," *Regional Studies* 23(6), 499-510.

Hanson, S. and G. Pratt, 1992, "Dynamic Dependencies: a geographic investigation of local labor markets," *Economic Geography* 68(4), 373-405.

Hodge, D. C., 1990, "geography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urban transportation," *Urban Geography* 11(1), 87-100.

Johnston, R. J., 1986, "Job markets and housing markets in the developed world," *Tijdschrift voor Economic en Social Geografie* 77(5), 328-336.

Johnston-Anumonwo, Ibipo., 1988, "The Journey to work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Urban Geography* (2), 138-154.

Lewis, J. and J. Foord, 1984, "New towns and new gender relations in old industrial regions: women's employment in Peterlee and East Kilbride," *Built Environment* 10, 42-52.

Nelson, K., 1986, "Labor demand, labor supply and the suburbanization of low-wage office work," in A. J. Scott and M. Storper (eds.), *Production, work, territory*, Boston: Allen and Unwin.

Peck, J. A., 1992, "Labor and Agglomeration: Control and Flexibility in Local Labor Markets," *Economic Geography*, 68(4), 325-347.

Peck, J. A., 1989, "Reconceptualizing the local labour market: space, segmentation and the stat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3, 42-61.

Pratt, G. and S. Hanson, 1988, "Gender, class, and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D)* (1), 15-36.

Pratt, G., 1989, "Reproduction, class and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city," in R. Peet and N. Thrift (eds.), *New models in geography*, Unwin Hyman.

Rurherford, R. and G. Wekerle, 1988, "Captive Rider, captive labour: spatial constraints and women's employments," *Urban Geography* 9(2), 116-137.

Scott, A. J., 1988a, *Metropolis: From the Division of Labor to Urban For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os Angelis.

Scott, A. J., 1988b, *New Industrial Spaces: Flexible Production Orga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Pion, London.

Simpson, W., 1980, "A simultaneous model of workplace and residential location incorporating job search," *Journal of Urban Economics* 8, 330-349.

Simpson, 1987, "Workplace location, residential location, and urban commuting," *Urban Studies* 24, 119-128.

Storper, M. and A. J. Scott, 1989, "The geographical foundations and social regulation of flexible production complexes," in J. Wolch and M. Dear (eds.), *The Power of Geography*, Unwin Hyman.

Storper, M. and R. Walker, 1983, "The theory of labour and the theory of lo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7(1), 1-41.

Walker, R. A., 1981, "A theory of suburbanization: capit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urban space in the United States," in M. Dear and A. J. Scott (eds.), *Urbanization and urban planning in capitalist society*, Methuen: London and New York.

Werkerle, G. R. and B. Rutherford, 1989, "The mobility of capital and the immobility of female lobor: responses to economic restructuring," in J. Wolch and M. Dear (eds.), *The Power of Geography*, Unwin Hyman.

Local Labour Markets of the Printing Industry in Seoul

Park, Bae-Gyoon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cal labour markets which have been form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industrial location and production methods, and the reproduction of labour. The study attempts to analyse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workers' community life on the urban spatial structure.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the way in which a worker's job and his/her residence are locationally interrelated in a local labour market. The printing industry in Seoul is taken as a case in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printing industry in Seoul is comprised of two groups of businesses; smaller ones which are in charge of flexible small lot production and big businesses characterized by mass production. The two groups of businesses employ different production methods, which in turn form two different industrial spaces: a central city region and the Kuro-Youngdeungpo region of the printing industry in Seoul. The central city region is characterized by a cluster of small businesses, whereas the Kuro-Youngdeungpo region in the peripheral area of Seoul is characterized by big businesses.

The local labour markets of the two regions differ. The labour market of the central city region is composed of various types of workers, and shows a high turnover rate and flexible, unstable employment relations. The labour market of the Kuro-Youngdeungpo region is characterized by a high percentage of blue-collar workers and relatively stable employment relations. The differences in the local labour markets are based on the differences in production methods.

To understand the locational interrelation between workplace and residence, labour markets are analysed from the viewpoint of labour reproduction as well as that of production methods. The study reveals that the main factors controbuting to the localized reproduction of the labour force are; 1) the workers' residential location, 2) the job search process related to search methods, job preferences, and workers' cultural habits, and 3) gender relations. Firstly, workers' residential location is determined by the structure of the housing market and the pattern of residential segregation in the urban space as well as the workers' residential preferences. Secondly, workers' job search methods, social relations for job search, cultural habits, and job preferences determine the nature of the localized job search process. Thirdly, the dual role of the married female workers as homemakers and wage workers is a condition which restricts married women's participation in wage labour, and affects the supply of female workers in the local labour markets.

The average distance between the workplace and residence in the Kuro-Youngdeungpo region is shorter than that of the central city region. This is because the localized reproduction of the labour force affects the locational interrelation between job and residence.

Keywords: local labour market, localized reproduction of labour, employment relation, residential location, localized job search process, gender relation, distance between workplace and residence.